

■ KIA 금주의 프로야구

# “꿀찌 LG 잡고 중위권 도약”

“안방에서 꿀찌 LG잡고, 중위권 도약 노린다.”

프로야구 페넌트레이스가 초반 치열한 순위싸움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8~13일) 최하위 팀인 KIA와 LG의 꿀찌 탈출 싸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KIA는 지난 주말 3연패로 7위로 추락했고, LG는 4연패로 꿀찌에 머무는 등 양팀 모두 극심한 침체에 빠져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양팀은 이번주중 광주 3연전에서 지긋지긋한 연패의 사슬을 끊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8일 첫 대결의 선발도 KIA는 1선발 윤석민(1승 4패·방어율 1.96)을, LG는 ‘특급 에이스’ 박명환(3승·방어율 2.12)을 예고하는 등 초반 기싸움에 열을 올리고 있다.

KIA는 올 시즌 LG전서 2승1패로 일단 우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팀 타율은 0.245로 LG(0.256)에 다소 밀리지만, 최근 5경기에서 3할타를 터

## 안방서 연패사슬 끊기

## 주말 선두 SK와 승부

◇프로야구 중간순위 (7일현재)

순위	팀	승	패	무	승률	게임차	연속
1	SK	15	9	2	0.625	-	1패
2	한화	13	10	1	0.565	1.5	6승
3	롯데	14	13	0	0.519	2.5	1패
4	현대	13	13	0	0.500	3.0	1승
5	두산	12	14	0	0.462	4.0	4승
6	삼성	11	13	1	0.458	4.0	1승
7	KIA	12	15	0	0.444	4.5	3패
8	LG	11	14	0	0.440	4.5	4패

리고 있는 장성호-홍세완-이현곤이 믿을직스럽다.

특히 5월들어 타격감을 회복한 장성호는 시즌 통산 타율이 0.247에 불과하지만 최근 5경기에서 18타수 7안타, 1홈런(타

율 0.389)으로 몰오른 타격감을 뽐내고 있다.

KIA는 경기 중반까지 LG에 1~2점만 앞서 나간다면 중간계투 신용운과 마무리 한기주를 투입, 완승을 이끈다는 복안이다.

이에 맞선 LG는 초반 맹렬했던 상승세가 꺾이고 연패에 빠졌지만, 박명환을 중심으로 한 선발진과 마무리 우규민으로 이어지는 투수진은 믿을만하다.

다만 중심 타선인 박용택과 발테스가 최근 5경기에서 각각 0.242, 0.125로 부진에 빠져 타격은 그리 위력적이지 못하다.

KIA는 주중 LG를 잡고 나면 선두 SK와 힘겨운 주말 3연전(광주·11~13일)을 벌여야 한다.

SK는 용병 투수 레이번(5승)과 로마노(3승 1패)의 위력투가 매섭고, 정근우(0.316), 박재상(0.312) 등이 포진한 타선도 위협적이어서 쉽지 않은 승부가 예상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바람이 더 세계 불어라”

2007 울산컵 PWA세계윈드서핑 대회가 열린 7일 울산시 울주군 진해해수욕장 앞바다에서 출전 선수들이 시원스레 파도를 헤쳐며 서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박지성 EPL 우승 메달 획득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 아시아 선수로는 처음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명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가 통산 16번째 ‘종가 리그’의 우승컵을 들어올리면서 맨유의 ‘파워엔진’ 박지성(26·사진)이 한국은 물론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프리미어리그 우승 메달을 목에 걸게 됐다. 맨유는 7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리그 2위 첼시가 아스널과 1-1로 비긴 덕분에 경기를 치르지도 않고 우승을 확정했다. 전날 맨체스터 시티를 1-0으로 누른 맨유는 28승4

무4패(승점88)로 두 경기를 남겨놓은 상황에서 2위 첼시(승점81)와 승점 7 이상의 격차를 벌려 통산 16번째 리그 우승을 차지했다.

맨유는 2002~2003 시즌 이후 4년 만에 리그 정상 탈환에 성공했고 역대 우승 횟수는 리버풀(18회)에 이어 2위. 프리미어리그 우승 메달은 박지성이 아시아에서는 처음이다.

물론 아시아 선수 중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처음으로 경험한 것은 2001~2002 시즌 우승팀 아스날의 멤버였던 일본 국가대표 미드필더 이나모토 준이치였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맨유 ‘돈방석’에

## FA컵까지 우승판 1천억 부수입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가 4년 만에 리그 우승과 함께 ‘돈방석’에 앉게 됐다. 먼저 중계권료 수익이다. 프리미어리그는 중계권료 수익의 50%를 20개 팀에 균등 배분하고, 25%는 상금 성격으로 성적에 따라 차등 배분한다. 그리고 나머지 25%는 홈 경기

TV 생중계 횟수에 따라 나눠 준다.

게다가 맨유는 FA컵 결승에도 올라 이미 중계권료로 240만 파운드(약 44억원)를 확보했고, 우승하면 100만 파운드(약 18억원)를 추가로 가져간다.

영국 유력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맨유는 비록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4강 진출만으로도 중계권료와 상금으로 약 2000만 파운드(약 368억 원)를 받을 전망이다.

맨유가 FA컵 우승까지 차지하면 올 시즌 1천 억 원에 가까운 부수입을 올리는 셈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최희섭 KIA행 금주 말 결정

## 정재공 단장 현지서 접촉

## 이적료 아직 합의점 못찾아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최희섭(28·탬파베이 데블레이스) 영입 여부가 이번 주말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KIA 구단은 7일 “최희섭의 영입을 위해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로 건너간 정재공 단장의 귀국일정이 당초 예정일(8일)보다 늦은 이번 주말께나 될 것”이라고 밝혔다.

KIA 관계자는 “정 단장과 조찬권 전력분석팀장이 두 차례 최희섭을 만났지만 여러 문제 때문에 계약에 진통을 겪고 있다”면서 “이번 주말까지 계약이든 협상 결렬이든 무조건 일을 매듭짓고 돌아오는 게 정 단장의 뜻”이라며 귀국 지연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 단장은 최희섭의 계약 업무와 병행해 시즌 도중 용병들의 부진에 대비, 대체 용병도 물색중”이라고 덧붙혔다.

최희섭의 계약이 이처럼 뒤로 미뤄지는 이유는 물론 돈 때문이다.

올해 탬파베이 개막전 로스터에서 제외된 뒤 마이너리그 계약을 하지 않은 최희섭은 미국생활을 접고 LG에 입단한 봉준근 수준의 대우(계약금 10억원, 연봉 3억5천만원)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상태.

그러나 지난 해 최희섭 영입을 위해 거액의 자금을 마련했던 KIA는 올 예산의 대부분을 집행해 최희섭측 요구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여기에 최희섭 영입에 따른 이적료도 걸림돌이다.

최희섭이 올 해초 탬파베이와 2년 간 총 195만 달러의 스플릿 계약을 하면서 ‘원하면 조건 없이 FA로 풀어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삽입했지만 탬파베이가 이적료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해 메이저리그 재도전을 이유로 KIA의 러브콜을 뿌리쳤던 최희섭이 고향 광주 연고 구단의 유니폼을 입을 지 아니면 미국 잔류 또는 일본행을 선택할 지 이번 주말 정 단장의 입국에 팬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영광실업고·영광고

## 고등부 남·여 우승

## 전남도지사기 태권도

영광실업고등학교가 제26회 전남도지사기 태권도 겨루기 대회에서 우승했다.

영광실업고등학교는 지난 5~6일까지 고흥 팔영 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남고부에서 우승했으며 영광고등학교는 여고부 우승을 차지했다. 또 남초부(지학년)우승은 영암초 등, 남초부 고학년 우승은 여수무선초등이 차지했다. 여초부에서는 고흥도화초등, 남중등부 무안현경중, 여 중등부에서는 순천남산중학교가 각각 우승했으며 남자 대학부는 성화대학이 우승했다. /최재호기자 lion@



8일(화)

- ▲전국 총계 1.2학년 대학축구대회(12: 00·KBSN Sports)
- ▲프로야구 <삼성-두산>(18: 00·KBSN Sports), <SK-롯데>(18: 20·SBS스포츠)
- ▲일본프로야구 <한신-요미우리>(18: 00·MBC ESPN)

국제약품 기업광고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캠페인은 제 11회 소비자가 뽑은 좋은 광고상'을 수상하였습니다.

### "어보" 사랑해요!

### "엄마" 사랑해요! "어보" 사랑해!

## 한마디 말로도

당신곁에 건강한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사람의 병에는 약리의 화학작용 이외에 마음의 화학작용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제약품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약보다 사랑이 먼저인 사람들에게 한걸음 한걸음 다가설 때마다 국제약품은 무엇을 베풀었다기 보다는 오히려 더 큰사랑을 베풀었던 것 같습니다. 약리의 과학과 함께 사랑의 힘을 믿는 회사 사랑으로 건강해 지는 세상 국제약품이 앞장서겠습니다. 국제약품은 사랑의 효능을 믿습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 국제약품

### "엄마" 사랑해요!